



제주어상담실 이용자 10명 중 2명 ‘육지 사름’

제주학센터 개소 1년 실적
전용 전화나 전자우편 통해
도내 77%·도외 22% 접수
30~40대 연령대 절반 넘어
어휘·구와 문장 문의 많아

제주어상담실 이용자 10명 중 2명은 도외인인 ‘육지 사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 이용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가

제주어종합상담실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의 상담 실적을 집계한 결과다.

제주어상담실은 ‘제주어, 궁금한 거 낚아 물어봐서’이란 표어를 내걸고 지난해 3월 26일 문을 열었다. ‘들어봐서’ 상담전화(1811-0515)나 전자우편(jejueo0515@hanmail.net)을 이용해 제주어 관련 상담을 접수한 결과 1년 동안 336건이 모였다.

도내 이용자는 259건으로 전체의 77.1%였다. 도내 상담 건수 중에 28건(8.3%)은 제주도 이주한 도민으로 파악됐다. 도외는 75건으로 22.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02건(30.3%)으로 가장 많고 50대 97건(28.8%), 30대 72건(21.4%), 60대 19건(5.7%), 70대 10건(3.0%)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일반 171건(50.9%), 예술인 43건(12.3%), 언론 관계자 42건(12.8%), 공무원 35건(10.4%), 학생 17건(5.0%), 연구직 12건(3.6%), 학교 4건(1.2%) 등 각계에서 제주어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 내용도 다양했다. 336건 중 분석이 가능한 321건을 들여다보면 어휘 관련이 106건(28%)으로 가장 많았고 구와 문장 36건(11%), 뜻풀이 58건(18%), 표기 47건(15%), 어원 5건(2%) 등으로 분류됐다. 어휘 관련 가운데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82건(26%)이었고 제주어를 표준어로 바꿔 달라는 경우가 24건(8%)이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상담실이 제주어가 궁금한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내는 역할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그간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자료 모음집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2020제주비엔날레 8월 중순 연기

도립미술관 자문위 등 거쳐
코로나 여파 두달 늦추기로

2020제주비엔날레 일정이 8월 중순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제주비엔날레를 주최하는 제주의립미술관 측은 “최근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등에서 코로나19 여파로 6월 개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일정을 8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첫 제주비엔날레에 이어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제주비엔날레는 ‘활망, 크고 많고 세다’를 주제로 정했다. 제주의 특성과 현대 동시대 미술을 융합하는

주요 키워드로 ‘활망’을 택했다.

도립미술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시 일정을 6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89일간으로 소개했다. 참가 규모는 20여개국 70여명에 이른다. 같은 해 광주비엔날레(9월 4~11월 29일), 부산비엔날레(9월 5~11월 8일)보다 3개월 가량 앞선 일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역, 나라간 이동 제한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 작가들이 사전에 제주 현지 작업을 벌이거나 행사 참가 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2020제주비엔날레 기본계획 공개 당시 5월 말



2017제주비엔날레. 3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비엔날레가 코로나 여파로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개막을 앞뒀다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지난달엔 6월 중순으로 일정을 수정해 발표했다.

현재 도립미술관은 “2020 제주비

엔날레 운영 대행 용역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도립미술관의 관계자는 “조만간 달라진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아프리카박물관에서 꿈을 키워요

7월까지 KB열린 박물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관람료 지원과 전시 해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선 아프리카박물관(관장 한성빈)에서 청소년들이 무료로 박물관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020 KB손해보험과 함께 하는 열린 박물관’을 통해서다.

‘열린 박물관’에서는 제주지역 한

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소외계층 초·중·고등학생 단체에 박물관 입장료를 지원한다. 또한 박물관의 학예사와 교육사에게 전문적인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해설 시간은 30~40분 내외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박물관 관람을 통해 문화 향유에 보다 관심을 갖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7월까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KB 박물관 노닐기’ 홈페이지 ‘열린 박물관’ 배너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 아프리카박물관이 ‘열린 박물관’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프리카박물관은 1층 사파리파크, 2층 아프리카 유물 상설전, 3층 아프리카 현대미술 기획전으로 짜여졌다. 올해 전면 개편된 상설전시실에는 3

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아프리카 유물과 1930~60년대 촬영된 아날로그 사진들을 디지털로 복원한 아프리카 회귀 영상, 마사이족의 삶과 애환을 기하학적 문양과 컬러로 재구성한 애니메이션 ‘에타세레, 마사이’, 아프리카 대륙이 품은 문화와 역사를 담아낸 미디어 파사드 ‘킹덤 오브 아프리카’ 등을 만날 수 있다. 기획전시실에는 ‘리빙컬러’전이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회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다우디 텅가팅가, 아름다운 색깔과 붓터치가 인상적인 찰스 응가티아, 사회적 풍자와 이슈를 재치있게 풀어내는 ‘동아프리카 현대미술의 거장’ 마이클 소이작품 등 150여 점이 전시됐다. 문의 064) 738-6565.

전선희기자

오페라 아카데미 수강 열기

(사)오페라인제주(이사장 강용덕, 단장 오능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오페라 아카데미 수강하려는 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현산업주식회사의 후원과 제주메세나협회·오페라인제주 주최로 마련된다. 파트별 지도, 마스터클래스, 특강, 현역 성악가의 음악코치, 연출가의 연기 지도 등으로 짜여진다. 주최 측은 모집 마감(3월 26일)을 앞두고 신청 인원이 이미 정원 30명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오디션 실황은 이달 28일 오후 3시 유튜브로 중계될 예정이다. 문의 064) 748-7879.

서귀포시민 음악 아카데미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과 서귀포합창단이 4월부터 2020시민음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만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아카데미는 예술단 상임단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관악·합창 분야 실기 강좌를 이어나간다. 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타악기, 트럼펫, 오보에, 바순, 하프, 앙상블·합창, 성악 마스터클래스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서귀포예술단은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관악·합창 관련 동호인 단체를 찾아가는 아카데미도 실시한다. 모집은 이달 31일까지 이루어진다.

취 임 수 상



이 태 중(23회)

애월중학교 총동창회장

애월중학교총동창회 제24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 영 민(30회)

제1회 자랑스러운 애중인(애월중학교) 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애중인 상

-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5대총재 역임
- 제주최초 국제로타리 초아의봉사상 수상
- 캄보디아 금강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증
- 캄보디아 국가최고훈장 수훈(2회)
-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머티 회원(60호)
- 제주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장

애월중학교총동창회 회원일동

애월중학교총동창회

회장 이 태 중 외 회원일동



MBC 이사 겸 기획조정본부장



강 지 용

(삼달1리 출신)

MBC 이사 겸 기획조정본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달1리마을회